

## 칸트 대상화 이론의 구성 - 누스바움의 비판을 중심으로\*

강은아\*\*

### I. 도덕적 문제 제기로서의 대상화

페미니즘에서는 ‘대상화’가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라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르면 여성,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되물림되는 것(gender)이다.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적 조건에서 여성은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다.<sup>1)</sup> 일상적인 맥락에서도 ‘대상화’는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특히 성적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일상적 표현으로서의 ‘대상화’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반영함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 번호)(NRF-2019S1A5B5A07092367)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시간강사

1) 페미니즘 이론가인 맥키논은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은 대상화하는 자(the objectifier)로, 여성은 대상화되는 자(the objectified)로 정의된다고 주장한다. MacKinnon, C. (1987).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USA: Harvard University Press.

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대상화 개념은 성정치적 맥락에 국한되지는 않는다.<sup>2)</sup>

칸트 윤리학에서 볼 때, 대상화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칸트적 문제의식에 따르는 광범위한 전통에 따르자면, 비도덕적 행위의 비도덕성은 인간의 도덕적 위상과 사물의 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패에 있다. 인간은 사용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갖는데 인간을 대상화하는 것은 이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이다.<sup>3)</sup> 물론 현대에 와서 이러한 생각은 칸트 윤리학의 입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대상화라는 개념 및 문제 제기는 일상적인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주 칸트적 직관에 기대어서 주장된다.<sup>4)</sup>

대상화 개념의 칸트적 기원은 『윤리형이상학 정초』의 소위 ‘인간성 정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도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하라”<sup>5)</sup>가 그것이다. 칸트는 상대적 가치인 가격을 갖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절대적 가치인 존엄성을 가지므로, 인간의 가치를 단지 유용성이나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하였다.<sup>6)</sup> 이러한 인간 존엄

2) 대상화는 페미니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도 소외로서의 물화, 사물화 개념이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3) ‘objectification’은 ‘대상화’, ‘물화’, ‘사물화’ 등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말로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강조점을 갖는다. ‘대상화’로 번역되면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물화’나 ‘사물화’로 번역되면 인간이 아닌 사물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나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인다는 이유로 ‘objectification’을 ‘대상화’로 번역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물화임을 포함한다. 대상화는 주체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4) 이를테면 한 신문 칼럼은 대상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화한다. 상대를 자신과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사물처럼 대한 게 잘못된 근원이다.” 장혜수. “대상화”, 중앙일보, 2020.7.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8767#home>)

5)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IV429). 원문의 번역은 Felix Meiner판(Kant, I. (201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을 기본으로 백중현의 번역(임마누엘 칸트 (2014).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중현 역. 파주: 아카넷.)과 김석수, 김종국의 번역(임마누엘 칸트 (2019). *도덕형이상학 정초* 김석수, 김종국 역. 실천이성비판: 파주: 한길사.)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하였다.

성이라는 생각은 대상화라는 문제 제기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대상화라고 도덕적 이익을 제기할 때, 우리는 기꺼이 칸트주의자가 된다.

하지만 칸트는 ‘대상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상화는 칸트 윤리학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학문적인 논의에서도 대상화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테면, 칸트주의에 충실한 입장에 따르자면 대상화는 정의상 도덕에 반하는 일이다. 대상화는 인간성의 격하이고 인간성의 격하는 절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칸트적 입장에 아주 충실하지는 않은 어떤 입장에서는 모든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후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생각은 철학자 누스바움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문제적이지는 않다. 어떤 대상화는 허용되거나 심지어 권장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톡은 흥미로운 주장을 한다. 스톡은 누스바움의 대상화 이론과 칸트적 대상화 이론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충돌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두 이론의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의 목표는 현재 사용되는 대상화의 주요 용법들(usages)을 잘 구분하는, 설명적인 것이다. 반면, (칸트적 전통에 있는) 맥키논의 목표는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한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현상들을 범주화한 것이 대상화인 것이다.<sup>7)</sup>

스톡의 해석에 따르면, 누스바움은 대상화를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개념으로 전제할 필요가 없다.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칸트와 맥키논은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현상을 규

6) Kant, I. (201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 IV428, IV 434-5. 윤리형이상학 정초는 정초로 줄여 표기하고, 본문 인용시 베를린 학술원판의 권수와 쪽수로 표기한다.

7) Stock, K. (2015). *Sexual objectification*. *Analysis*, 75(2).

명하자는 데에서 출발하므로, 대상화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입장은 전자는 일상적 용법의 분석이고, 후자는 규범적 논의로, 논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각자가 얻고자 한 것과 얻은 것이 전혀 겹치지 않으므로, 스투트는 두 입장 사이에는 논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상화의 일상적 용법을 분석하는 논의가 그 자체로 가치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대상화 개념의 적용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과열되는 상황이라면 논쟁의 중심 용어인 대상화의 의미나 용법을 정리하는 일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도움이 대상화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상화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것은 대상화가 도덕적인 문제제기로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상화 문제의 핵심은 대상화라는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적어도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화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듯하다. 칸트적인 입장과 누스바움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사실, 스투트의 누스바움 해석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sup>8)</sup> 누스바움도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대상화의 특징 규명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기 때문이다.<sup>9)</sup> 누스바움의 대상화 논의도 규범적 차원의 것인 것이다. (이는 뒤에서 밝혀질 것이다.) 게다가 누스바움의 논의를 규범적인 것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논의가 일어날 공간이 열린다. 누스바움 논의는 이전까지 칸트주의에 기대어 공유되었던 대상화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논점들이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는 누스바움의 논의가 칸트적인 대상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만한 새로운 조명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8) 스투트의 누스바움 해석은 윤리적, 규범적 문제로서 대상화를 보는 것을 방해한다. 스투트의 해석은 누스바움 논의가 대상화를 왜 문제화해야 하는지, 그 문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대답을 제공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누스바움의 후반부의 규범적 차원의 논의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9) 누스바움 논문의 후반부는 전적으로 여기에 할애되어 있다. 그러니 전반부의 용법 논의는 후반의 규범적 논의를 위한 예비 논의로 봐야 한다. 대상화 표현의 다의성 논의는 도덕적 문제로서의 대상화를 규명한다는 논의 목표에 종속적인 것이다.

또한 나는 대상화 이론으로서 누스바움의 입장보다는 칸트적인 입장을 택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칸트의 대상화 이론이 분명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듯한 대상화 이론은 적어도 두 가지 의문에 대답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대상화는 무엇인가? 둘째, 왜 대상화는 도덕적으로 나쁜가?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칸트적 대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대상화는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분명하지 않다.

## II. 누스바움의 대상화

누스바움에 따르면, 대상화는 (인간 관계로 한정할 때) 인간을 대상으로 여기거나 대하는 일이다.

“모두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의해 대상화된다고, 누군가를 대상으로서 보고/거나 대한다고, 그럴듯하게 불릴 법한 사례들이다.”<sup>10)</sup>

“각각의 경우, 인간이 대상으로 여겨지고/거나 대해진다.”<sup>11)</sup>

대상화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를 인식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대상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은 사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대상화’도 단일한 의미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누스바움은 대상화의 주요 방식을 다음의 7가지로 분석한다.

1. 도구성: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그/그녀의 목적의 도구로서 대한다.
2. 자율성 부정: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결여한

10) Nussbaum, M. (1995). Objectific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4(4), 251. 강조는 필자가 하였다.

11) 위의 책, 254. 강조는 필자가 하였다.

것으로서 대한다.

3. 불활성: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행위성과 활동을 결여한 것으로서 대한다.
4. 교환가능성: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a) 같은 유형의 대상으로/오르나 (b) 다른 유형의 대상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서 대한다.
5. 침범가능성: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온전한 경계가 부재하여 부수거나, 찌부러트리거나 침입해도 되는 것으로서 대한다.
6. 소유성: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다른 이에게 소유나 매매 가능한 것으로서 대한다.
7. 주체성 부정: 대상화하는 자는 대상을 그의 경험과 감정이 (있더라도)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대한다.<sup>12)</sup>

하지만 이 목록은 가능한 대상화 방식의 전부가 아니다.<sup>13)</sup> 또한, 7가지 방식이 개별화되어 나타날 필요도 없다.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복수의 대상화 방식들이 포함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7가지 방식이 적어도 **개념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일한 행위에 도구화와 주체성 부정이 둘 다 구현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다가 보통의 대상화 행위에는 복수의 방식들이 포함된다. 오히려 한 가지 방식만을 갖는 대상화 행위가 드물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거짓으로 곧 갚겠다고 약속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자. 이때, 그는 친구를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대했고, 친구의 자기-결정 기회를 박탈했고, 친구가 속은 걸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지에 무관심하였다. 그는 친구를 도구화, 자율성 부정, 주체성 부정으로서 대상화한 것이다. 단, 그는 친구를 자기 소유로 여긴 것은 아니고, 활동을 결여한 존재나 교환 가능한 존

12) 위의 책, 257.

13) 누스바움은 이 목록에 다른 대상화 방식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랭턴은 이 목록에 신체로의 환원, 외모로의 환원, 침묵시키기를 추가하였다. Langton, R. (2009). *Sexual solipsism: Philosophical essays on pornography and objec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8-9.

재로 여긴 것도 아니고, 친구의 신체를 침범한 것도 아니다. 즉, 그는 소유, 불활성, 교환 가능, 침범 가능한 존재로 대함으로써 친구를 대상화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보통의 대상화 행위는 복수의 대상화 방식들을 포함한다. 누스바움은 대상화가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군집 용어(cluster-term)”라고 말한다.<sup>14)</sup>

이상의 누스바움의 대상화 개념은 칸트의 대상화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 여부는 대상화 판정에서 고려사항이 아니다. 대상화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보고/거나 대한다”이고, 그 중 하나인 도구화는 “그/그녀의 목적의 도구로서 대한다”이다. 중요한 건 타인을 조금이라도 대상으로 여기거나 대했느냐이다. 이러한 대상화는 대부분의 목적 추구적인 행동을 포함하므로, 무척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누스바움은 애인의 배를 베개 삼아 눕는 행위를 대상화의 예로 든다. 애인의 신체를 사물로 대했다는 점에서 대상화이고, 눕는다는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구화라는 것이다.<sup>15)</sup> 이 경우를 누스바움은 대상화가 일어났지만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칸트적인 개념화는 훨씬 엄격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칸트적 입장에 따르면 대상화는 타인을 **대상으로만** 대할 때 일어난다.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목적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일은 인간 행위의 불가피한 부분인 것이다. 대상화는 타인을 자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만 대할 때, 타인을 대상으로만 대할 때 일어난다. 이는 인간성의 격하이므로 모든 대상화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대상화는 훨씬 포괄적이다. 다른 인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거의 모든 인간 행위가 대상화인 것이다.<sup>16)</sup> 그래서 누스바움의 과제는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대상화가 어떤 것인지

14) Nussbaum (1995). 앞의 책. 258.

15) Nussbaum (1995). 앞의 책. 265.

를 밝히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어떤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라고 하는가? 자율성을 부정하는 도구화가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다. 누스바움은 이를 노예제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타인이 자율적 존재임을 부정하면 그를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대하게 된다. 그 역도 그렇다. 이때 타인은 노예의 지위로 떨어진다. 이처럼 타인을 나의 노예로 여길 때 그를 내 필요성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성인 간의 인간관계로 한정할 때, 자율성 부정과 도구화는 필요충분조건에 있다. 또한, 누스바움은 노예제 사례에 기대어서 자율성 부정으로서의 도구화가 다른 대상화 방식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상화로 나아가는 인과적 원인일 수는 있다고 지적한다.<sup>17)</sup>

이상의 두 입장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견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안적이다. 누스바움은 인간을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대상화라고 말한다. 칸트주의자는 인간을 대상으로만 대하는 것이 대상화라고 말한다. 누스바움은 모든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칸트주의자는 모든 대상화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 입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화 규정을 약정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화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실천적인 문제다. 누스바움은 대상화 개념을 취함으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대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한다. 반면, 칸트주의자는 대상화로써 인간성을 격하시키는 행위 방식을 특정한다. 칸트적 전통의 맥키논과 드워킨은 대상화로써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젠더로서의) 남성에 의한 (젠더로서의) 여성 종속을 문제화하였다.<sup>18)</sup>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화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

16) 파파다키는 누스바움의 대상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대상화의 문제의식을 사소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누스바움은 대상화를 도덕적 문제로서의 대상화 개념을 제거하는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Papadaki, L. (2010). What is objectification?. *Journal of Moral Philosophy*, 7(1).

17) Nussbaum (1995). 앞의 책, 261-262. 이에 대한 비판은 랭턴을 참조하라. Langton (2009). 앞의 책.

18) 사실, 누스바움의 논의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목표 간에 간극을 발견할 수 있다. 누스바움

것인가? 이것은 이론적 해명보다는 결정과 합의의 문제로 보인다.

나는 대상화를 도덕적인 문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대상화는,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이든 페미니즘의 전통이든,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왔다. 현재에도 대상화는 도덕적으로 문제화하는 맥락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다. 물론 누스바움이 지적한 대로,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개념적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혼란은 대상화 개념이 다의적이라고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다. 그 경우는 대상화가 아니라고 간단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다만, 누스바움의 대상화 논의는 그동안의 칸트적 전통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중요한 논점들을 제기한다. 우선, 대상화가 군집-용어라는 지적은 무척 유용하다. 7가지 대상화 방식은 대상화가 실은 복합적인 현상이었음을 드러내며, 이를 명시화해 분석할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또한, 누스바움 논의는 소위 대상화 현상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보다 신중하게 내리게 한다. 다음 장에서 나는 지금껏 당연시되었던 소위 칸트적 대상화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 III. 칸트의 대상화 이론 구성하기

많은 학자들은 칸트 윤리학에 대상화 이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여긴다. 대상화는 도구화라는 것이다.<sup>19)</sup> 다른 편으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칸트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대상화는 ‘인간성 정식’이 금지하는 것이다. 대상화는 모든 비도덕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성 정식’이 무엇을, 무슨 근거에서 금지하는지에 대한 동의할 만한 해석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

논문 초반부는 다양한 대상화 현상의 설명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반 이후는 대상화의 도덕적 문제에 집중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누스바움 대상화 이론의 설명적인 부분에만 주목한다. Stock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해석의 편향 때문에 누스바움의 규범적 차원의 문제의식은 그다지 주목되지 못하였다.

19) Papadaki, Herman도 이러한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인간성 정식’을 보자.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도 인간성을 인체  
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하라.  
(『정초』 IV429)

‘인간성 정식’이 금지하는 것을 대상화라고 하자. 그렇다면 ‘인간성 정식’은 무엇을 금지하는가? 인용에 따르면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기’와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지 못함’은 같은 사태인가? 이어지는 서술로 볼 때 두 가지는 같지 않다. 목적으로 대함은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기보다 더 많은 요구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함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하나는 인간을 도구화 즉 수단으로만 대하기를 하지 않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목적으로 대하기는 “목적 자체(Zweck an sich selbst)”로 대하기이다. 목적 자체는 다시금 수단이 되지 않는 목적으로,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한다는 것은 인간을 더 상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 행위 이론이 깔려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 행위는 수단-목적의 연쇄로 이뤄진다. 목적은 보다 상위 목적의 수단이 되고, 그 상위 목적도 다시금 더 상위 목적의 수단이 된다. 목적 자체는 이러한 소급의 정지를 말한다. 목적이 다시금 수단이 되는 소급 과정을 인간에서 멈추라는 것, 인간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목적은 없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 자체인 것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상위 심급의 목적에 의해 그 가치가 상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을 동시에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을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지는 『정초』에서 위 인용에 이어지는 사례 분석에서 드러난다. 자살

하지 않을 의무를 칸트는 이렇게 설명한다.<sup>20)</sup> “인간은 결코 물건이 아니므로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모든 자기 행위에서 언제나 목적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sup>21)</sup> 여기서 칸트는 인간을 목적 자체로 간주하는 것과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대비시킨다.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니 목적 자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의 수단화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어지는 논의에서 칸트는 목적으로 대함에 대한 사뭇 다른 얘기를 한다.

[...] 타인에게 거짓 약속을 하려고 뜻한 사람은 곧바로, 그가 타인을, 그 사람도 동시에 자기 안에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약속에 의해 나의 의도를 위해 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나의 처신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자신 이 행위의 목적을 함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초』 IV429-30, 강조는 필자)

거짓 약속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해 칸트는 이 행위의 도덕적 실패는 거짓말을 당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을 듣는 자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이성적 행위자인데, 속임을 당하는 경우 이 행위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목적에 동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속임, 기만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사례에서 일어난 도덕적 실패는 도구화가 아니라, 동의할 수 없게 대함에 있다. 기만으로 인해 동의를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로 인해 자기-결정이 침

20) 단, 이는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자살을 금지하는 것이지, 다른 형태의 자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1) 『정초』 IV 429, 강조는 필자.

해되었다는 데에 있다.<sup>22)</sup> 그는 인간이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있어 속임을 당함으로써 존중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목적으로 대하기의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목적을 갖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존중하기다.

이상의 분석은 칸트의 대상화가 도구화와 등치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인간성 정식은 단순한 도구화의 금지가 아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함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기이다. 이것의 위반으로서의 대상화는 인간을 목적의 수단으로 환원시키는 데에서 성립하는 도덕적 실패다. 둘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서 존중하기이다. 이것의 위반으로서의 대상화는 인간이 자기 나름의 목적을 세우고 추구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데에서 성립하는 도덕적 실패다. 따라서 도구화만이 아니라 자율성 무시로서의 도구화도 인간성 정식 위반이며, 이 점에서 대상화될 수 있다. 대상화를 인간성 정식이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앞서의 누스바움의 분석과 상당히 유사해 보일 수 있다. 누스바움도 도덕적으로 나쁜 대상화는 자율성을 무시하는 도구화라고 주장하였다.<sup>23)</sup> 그러나 두 입장은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같지 않다. 먼저, 도구화와 자율성 무시의 개념적 관계를 달리 본다. 누스바움은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칸트는 도구화가 도덕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근거를 자율성 무시에서 찾는다. 또한, 정당화 문제에서도 칸트와 누스바움의 접근이 다르다.

사실, 누스바움의 논의의 가장 허약한 부분은 정당화 문제이다. 누스바움은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대상화를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특징들을 발견하는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먼저 대상화의 특징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특징들

22) 동의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오늘의 논의를 참조하라. O'Neill, O. (1989). *Between Consenting Adults, Construction of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 자율성의 부정, 무시 규정에 대한 칸트와 누스바움의 입장은 거의 같다. 누스바움의 자율성 부정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의 부정이다. 칸트의 자율성 무시는 인간이 자기 목적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의 무시다. 반면, 도구화 규정은 칸트의 규정이 누스바움의 규정보다 엄격하다. 칸트의 도구화는 도구로만 대하는 것이나, 누스바움의 도구화는 도구로 대하는 것이다.

의 어떤 조합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다른 조합은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자율성 부정과 도구화의 조합이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에서 누스바움은 왜 하필 저 조합이 도덕적으로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자율성 무시로서의 도구화가 “목적 자체 입 지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언급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지나치게 소략하며, 칸트적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다.<sup>24)</sup>

그렇다면 칸트는 도구화와 자율성 무시의 개념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또한 정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칸트는 ‘대상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 주제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대상화 이론을 구성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남겨두었다.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자.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아내는 남편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남편에게 병을 알리지 않기로 한다. 그녀는 선의에서 남편에게 진실을 숨긴다. 이러한 아내의 행위는 자율성 무시에 해당된다. 아내는 중요한 진실을 숨김으로써 남편의 자기 결정을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아내가 남편을 도구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도구화하지 않았지만 자율성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남편을 일종의 대상으로 대하였다.

이 분석은 성인의 경우에 도구화와 자율성 무시가 필요충분조건에 있다는 누스바움 주장의 반례가 된다. 문제의 행위는 성인 간에 일어나며, 도구화 없이 자율성 무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상대의 행복을 위해 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온정주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쉬울 것임을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례는 도구화와 자율성 무시의 관계와 간단치 않음을 시사한다.

먼저, 이 사례를 도구화라는 점에서 생각해보자. 도구화는 보통 행위자가 자기 욕구를 추구하며 수단을 취하는 일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수단이고 수단

24) Nussbaum (1995). 앞의 책. 265.

으로만 취급한다면 도구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도구화는 욕구 추구적 행위시 수단-목적 연관에서 행위자가 수단으로 결부된 인간에게 어떤 자리를 할당할 것인지의 문제다. 행위자가 그를 도구로만 대하는지, 아니면 도구 이상으로 대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치병 사례는 도구화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 아내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편을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다.<sup>25)</sup>

이제 자율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생각해보자. 남편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아내는 남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의 자율성은 무시되었다. 이것은 도구화는 아니다. 그리고 그녀의 욕구, 수단-목적 연쇄 등의 개념화 없이도 아내의 행위는 충분히 설명된다. 이처럼 자율성 존중/무시는 행위자 자신의 욕구나 목적과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율성은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 위상을 부여할지와 더 관련이 있다. 우리는 타인을 자기-결정하는 존재로 여길 수 있고, 꼭두각시나 미성숙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나와 전혀 무관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다. 즉, 인간을 존엄성을 갖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여길 수도 있고, 그 이하의 존재로 여길 수도 있다. 비록 선의라고 해도 아내는 남편을 이성적 존재로서는 무시하고 있다. 남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자율성 무시에 해당한다.<sup>26)</sup>

칸트의 의무 구분에서 도구화와 자율성 개념의 구분은 중요하다. 공적있는 의무는 도구화의 금지뿐만 아니라 자율성의 존중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의무는 타인의 목적(행복)을 나의 목적으로도 삼으라는

25) 이 사례를 도구화가 일어난 사례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를테면 아내의 목적은 남편의 행복이고, 이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남편을 대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구성은 상당히 어색하다. 아내가 남편의 행복을 욕구하고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남편의 무지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이해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 사례는 도구화의 전형적인 사례는 아닌 듯하다.

26) 물론 자기 목적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면서 타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구화와 자율성 무시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성을 예증해준다.

의무이므로 도구화를 안 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다. 내 욕구의 충족이나 내 목적의 추구라는 맥락을 넘어서, 나의 욕구나 목적과 무관하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요구되는 종류의 의무다.

지금까지 나는 인간성 정식 및 칸트적인 대상화 개념에서 자율성 무시가 도구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칸트의 대상화를 도구화로만 이해하는 것은 인간성 정식의 논의를 지나치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제 칸트적인 대상화에서 도구화와 자율성 무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대상화 설명에서 두 개념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가?

우선, 통상적으로 우리는 도구화 없이 자율성 무시만 일어난 경우를 두고 대상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는 않는다. 앞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가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다고 하자. 이때 그는 아내가 자신을 대상화하였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는 대상으로 대해졌을 수는 있어도, 대상화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상으로 대해짐과 대상화됨은 같지 않다.<sup>27)</sup> 대상으로 대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반면, 대상화됨은 도덕적으로 항의할 만한 것이다. 이처럼 대상화 표현의 통상적인 사용을 존중한다면, 도구화를 대상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도구화가 일어나면 대상화가 일어난 것이고, 도구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상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공격있는 의무의 비수행, 즉 도덕적으로 권장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종류의 의무의 위반은 대상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용법에 맞다.<sup>28)</sup> 이처럼 대상화의 통상적인 사용을 고려하면 도구화가 대상화의 판정 기준인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자율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칸트적인 문제의식에서 대상화의 도덕적 요점은 자율성 무시에 있다. 자율성에 호소하지 않고서 도구화가 왜 도

27) 반면, 누스바움은 이 둘을 같다고 놓는다. 대상화는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대해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상화를 분류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저 사례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8) 게다가 공격있는 의무는 어느 정도로 이를 실행해야 할지의 범위가 행위자의 자의에 맡겨지므로, 객관적으로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덕적으로 문제적이지를 말할 수는 없다. 도구화가 나쁜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이다. 자율성 무시는 도구화의 도덕적 나쁨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상화 비판의 정당화 문제에서 칸트 실천철학은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깊고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대상화하기, 즉 비도덕적인 행위의 문제는 인간 존엄성의 격하이다. 인간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림으로써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다. 어떤 목적이 가치있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세운 인간이 그것이 가치있다고 여긴 덕분이다. 그래서 가치의 원천은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가치는 인간성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성의 격하는 가치의 원천인 인간성의 무시이므로 대상화는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다. 어떤 인간이 가치를 갖는 것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이지, 그가 갖는 지위나 능력, 특징 때문이 아니다. 그리는 목적과 그가 세운 목적들의 가치는 그가 인간이라는 데에서 성립하지, 그리는 개별 존재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군가를 대상화하는 자는 그 무시로써 인간을 무시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목적이 가치 있을 조건을 파괴한다. 따라서 대상화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sup>29)</sup>

이제 우리는 칸트적 대상화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대상화는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다. 그렇다면 대상화란 무엇인가? 통상적인 사용을 존중한다면, 대상화는 인간을 자기 목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다. 도구화가 대상화의 판정 기준이다. 그렇다면 대상화는 왜 도덕적으로 나쁜가? 도구화는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추구하는 자율적인 존재임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나쁘다. 즉, 대상화는 자율성의 무시이며 그래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나쁘다.

29)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개인으로서의 나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로부터 나온다는 해석은 코스가드에서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코스가드에서 따른 것이다. Korsgaard, C. (1996).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6-132.

#### IV. 결론

지금까지 나는 대상화에 대한 누스바움의 접근과 칸트적 접근을 비교하고, 칸트적 접근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누스바움의 대상화 이론은 대상화 현상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명시적으로 구분할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도덕적 문제제기로서의 대상화 문제를 흐릴 위험성이 있고 정당화 이론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칸트적 대상화 이론이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다. 지금껏 칸트적인 대상화 이론은 별다른 검토 없이 도구화와 동일시되었으나 대상화를 인간성 정식의 견지에서 이해하면 그러한 해석은 일면적이다. 칸트에게 있어 대상화라는 도덕적 문제의 궁극적인 정당화는 자율성에 기대고 있다.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칸트, 누스바움, 대상화, 도구화, 자율성 부정

[참고문헌]

- 신승환 (2019). 디지털 시대의 인간이해와 인문학. 인문과학, 116, 167-196.
- 윤영광 (2020). 칸트 비판철학에서 주체의 비동일성 문제. 인문과학, 118, 127-187.
- 장혜수 (2020. 7. 7). 대상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8767#home>)
- 홍우람 (2021).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학]-[인간학] 에서 재구성된 칸트의 경험적 인식 이론. 인문과학, 121, 181-213.
- Denis, L. (2001). From friendship to Marriage: Revising Kant.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3(1).
- Kant, I. (2001). *Lectures o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 (201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 백종현 역 (2014). 윤리형이상학 정초. 파주: 아카넷. 김석수, 김종국 역 (2019).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 파주: 한길사.
- Korsgaard, C. (1996).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ton, R. (2009) *Sexual solipsism: Philosophical essays on pornography and objectif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slanger, S. (2012). *On Being Objective and Being Objectified, Resisting reality: Social Construction and Social Critiqu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rman, B. (1993). Could It Be Worth Thinking about Kant on Sex and Marriage?, *A Mind of One's Own*, eds. Antony, Witt. Boulder CO: Westview Press.
- MacKinnon, C. (1987).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1995). Objectific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24(4).
- O'Neill, O. (1989). *Between Consenting Adults, Construction of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padaki, L. (2010). What is objectification?. *Journal of Moral Philosophy*, 7(1).
- Stock, K. (2015). Sexual objectification. *Analysis*, 75(2).

## [국문초록]

이 글의 목표는 칸트적인 대상화 이론을 구성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이는 누스바움의 대상화 논의와의 대결을 통해 이뤄진다. 누스바움은 대상화는 다의적이며 모든 대상화가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칸트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대상화는 하나의 정의를 가지며, 정의상 모든 대상화는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다. 두 입장은 대상화 개념을 달리 규정하며, 이로써 문제화하는 사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대안적인 관계에 있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대상화는 인간을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적인 대상화의 특징은 자율성을 부정하는 방식의 도구화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입장은 대상화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로서의 대상화의 힘을 약화시키며, 대상화가 도덕적인 문제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대해 나는 대상화를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성에 항의하는 도덕적 문제로 보는 칸트적 접근방식을 옹호한다. 대상화는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만 대하는 것으로 언제나 도덕적으로 문제적이다. 다만 나는 기존의 대상화를 도구화와 같다고 여기는 해석에 반대하여 칸트주의적 대상화 이론의 핵심이 자율성 무시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인간성 정식’의 논의를 분석하고 대상화 표현의 통상적인 사용을 고려한다. 결론적으로 칸트주의적 대상화 이론에서 대상화의 기준은 도구화이며, 자율성 무시는 대상화의 비도덕성을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Abstract]

## Constituting a Kantian theory of objectification

Kang, Eun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and advocate Kantian objectification theory. This is done through a confrontation with Nussbaum's discussion of objectification. Nussbaum argued that objectification is a “cluster-term,” so that not all objectification is morally problematic.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Kantian perspective, objectification has one definition, and all objectification is, by definition, morally problematic. The two positions are alternatives to each other in that one cannot have the two positions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Nussbaum, objectification is to treat person as an object, and, particularly, morally unacceptable objectification is instrumentalization in a way that denies autonomy. But it weakens the power of objectification as a moral problem by overly expanding the scope of objectification, and is short of justification. I advocate a Kantian approach that sees objectification as a moral problem protesting the immorality that occurred in human relations. Objectification is not only treating humans as object, but as objects only, so that it is always morally problematic. However, I object to the usual Kantian interpretation that equates objectification with instrumentalization, and argue that the core of Kantian objectification theory ignores autonomy. I would analyze the ‘formula of humanit’ and consider the usual use of objectification. In conclusion, according to Kantian objectification theory, the criterion for objectification is instrumentalization, and ignoring autonomy ultimately justifies the immorality of objectification.

**[Keywords]** Kant, Nussbaum, objectification, instrumentality, negation of autonomy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29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4일

**[저자연락처]** chulssu@naver.com